

2016년 9월 광주7부 특강 (이여호수아 목자)
.....
주의 손이 함께 하신 안디옥 교회

말씀: 사도행전 11:19-26

요절: 사도행전 11:21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본문 말씀은 안디옥 교회의 개척에 관한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탄생한 이방 교회인 동시에 초대교회의 세계선교 본부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안디옥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서 좋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되었으며, 또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는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광주 7부 모임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신자들은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치 없는 나그네가 되어 장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슬피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 신앙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의 불길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지중해 연안인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 까지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산불이 났을 때 불을 끄기 위해 나뭇가지로 두들기면 오히려 불뿔이 사방으로 튀어가 불이 번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시 안디옥은 로마의 장군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신혼여행을 올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화려함 이면에는 향락과 사치가 만연하여서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까지 피신 온 신자들은 이런 퇴폐적이고 죄악된 이방문화에 동화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그 시대에 도전하여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불향락과 사치가 만연하여서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까지 피신 온 신자들은 이런 퇴폐적이고 죄악된 이방문화에 동화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그 시대에 도전하여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방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내적 외적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19b절을 읽겠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 자부심으로 인해 종교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와 같이 여기며 멸시하고 상종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소위 유다이즘입니다. 그들은 이 유다이즘의 장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몸은 이방 땅에 왔지만 막상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세계 선교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를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0절을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이들 역시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다아스포라 출신 유대인 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다이즘을 극복하고 헬라인에게도 도전하여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순수하게 헬라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겁 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스피릿과 믿음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이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 **“주의 손”**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나 힘을 나타내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심히 기뻐하시고 능력의 손길로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주의 능력의 손길이 도우시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a great number of people”** 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말씀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헬라인들은 철학적, 문화적 자부심이 강하고 교만하고 인본적인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복음과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존재를 영접하기가 힘든 자들이었습니다. 더구나 복음을 전한 자들은 사도 중 한 사람도 아니었고, 빌립 같은 능력 있는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무명의 피난민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튕기고 배척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까? 그것도 한 두 사람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따지기 좋아하고 인본주의적인 교만한 헬라인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복음 역사를 섬기기 위해 피싱에 도전을 하고 제자 양성을 하고자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잘 안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요즈음은 한 양을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고 그래서 제자 양성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주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셔서 도우실 때 신실한 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양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 소감을 쓰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성장하는 제자양성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관악 3부에는 사모님들이 15명이 있어서 매일 모여 기도하고 캠퍼스에 올라가 피싱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하여 서울대 양들 가운데 매주 40팀의 1:1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뿐 아니라 학생 26명이 장막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몇 년 전 여름수양회 때는 그해 양 9명이 3주 동안 합숙을 하며 30페이지 라이프 소감을 쓰고 또 몇 번이고 줄여서 발표를 했는데 한 자매는 무덤 속까지 갖고 가고자 했던 정욕 죄를 회개하는 소감을 눈물로 발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주의 능력의 손이 도우실 때 교만하고 이기적인 서울대생들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지난 광주7부 여름수양회 때 16명의 학생 양들이 참궤석하여 은혜 충만한 수양회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또한 우리 목자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한 역사임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둘째로, 안디옥교회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안다옥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난다는 소문을 듣고 즉시 유능한 성경선생인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심히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다고 권면했습니다. 바나바는 현재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림으로 개인 신앙을 갖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4절은 그를 가리켜서 착한 사람이라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착하다’는 헬라원어의 뜻은 ‘선하다’ ‘덕스럽다’.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즉, 바나바는 그 내면이 순수하고,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므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목자였습니다. 대개 마음이 착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good mind로 인해서 복음적이 되지 못하는 약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영적인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도울 때 복음적으로 분명하게 도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나바 목자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큰 무리가 주께로 다하게 되었습니다(24). 이렇게 교회 지도자인 바나바목자 자신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인도하는 안디옥 교회도 당연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셋째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의 동역을 통해 성장한 교회였습니다(25).

안디옥교회는 날이 갈수록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도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나바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는 갈수록 넘쳐 나는 양들을 생각할 때 도저히 자기 혼자 힘으로는 이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훌륭한 목자였지만, 양들을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말씀으로 제자로 양육하고 훈련을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역사가 커가면서 혼자서 그 큰 역사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몰려온 신자들을 대부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인간적으로 뛰어난 헬라인 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지속적으로 돕고 제자들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성경선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다소에 머물고 있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헬라지방에서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성경선생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13km로서 30 리가 넘는 길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손수 다소까지 찾아가서 사울을 설득하여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교회에서 일 년 동안 있으면서 큰 무리를 가르치므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역 역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는 베드로와 요한의 동역의 역사였고, 안디옥 교회의 역사는 바울과 사울의 동역의 역사였습니다. UBF의 역사도 이사무엘 선교사님과 배사라 선교사님의 동역의 역사입니다. 7부 역사는 송누가 목자와 임아브라함 목자님들의 동역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요회목자들과의 합심동역의 역사입니다. 두 사람의 합심동역의 역사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은 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또한 전도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담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지 아니하느니라.” 동역의 역사를 이루려면 어느 한쪽이 겸손히 죽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4년 전 민주당 문제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처럼 자기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죽어져서 양보하여 동역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후보 단일화는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교회는 처음부터 바나바와 바울 두 지도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장점을 인정해주고, 재능을 살려 겸손히 동역하였습니다. 이는 참으로 아름다운 동역의 역사였습니다. 역사가 부흥 성장한 역사를 보면 그 이면에 반드시 아름다운 동역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성령의 그릇이 이루어질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나무도 타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 1년 동안 광주 7부 역사 가운데 송누가 목자님과 임아브라함 두 목자님을 비롯해서 요회목자님들 가운데에도 아름다운 동역으로 성령의 그릇을 이루어 복음의 진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넷째로, 안디옥교회는 성경공부를 열심히 하여 제자를 양성하는 교회였습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사울은 일 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며 성경공부에 힘을 쏟았습니다. 아마도 바나바와 사울은 11성경공부, Group bible study, 각종 특강 말씀공부, 성경학교, Bible Academy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기에 힘을 썼을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굳게 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경공부를 통해서 왕성한 제자양성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서 함께 호흡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보다 구원에 이르는 도리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감격을 체험케 합니다. 또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때 그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소망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질 때 우리의 속사람이 조금씩 변화되어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제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깊이 있는 성경공부에 힘써야 합니다. 안디옥교회는 이러한 꾸준한 성경공부를 통해 제자들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 제자들이 마침내 그리스도인, 즉 'Christian'으로 불리어지게 되었습니다. 'Christian'이란 뜻은 'A man in Christ'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자'란 뜻입니다.

그 교만하고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헬라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께 속한자, 그리스도를 닮은자, 그리스도께 헌신된 제자로까지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나바와 사울의 헌신적인 성경공부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3:1절에는 안디옥교회가 자랑하는 성경선생들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교회에는 바나바와 사울을 비롯해서,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과 같은 쟁쟁한 성경선생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출신배경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교육수준도 달랐지만 모두 성경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델인 안디옥교회를 살펴볼 때 성경공부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제자들로 성장하는 비결임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안디옥 교회의 개척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개최되었고, 또한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성장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선생을 양성한 교회였습니다. 또한 바나바와 사울 두 지도자들이 합심동역하는 가운데 크게 성장하여 세계선교역사에 귀히 쓰임 받은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광주7부가 안디옥 교회처럼 믿음으로 도전하여 열심히 양을 치고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양을 얻어 일대일 제자양성을 하는 교회요, 합심동역을 통해서 성령의 그릇을 이루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